



美國의 껌產業 好況

73年度 販賣額 6億7千萬弗

미국의 껌產業은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

73년 미국에서 판매된 껌은 6억 7천만 \$ 어치나 되며 7백 20만 \$ 상당의 각종 껌이 세계 66개국에 수출되었다.

미국의 껌 소매상은 35만개 소나 되는데 작년 1년 미국인 한 사람이 1백 75개의 껌을 소

비함으로써 미국인은 세계 제일의 껌 소비국민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미국산 껌을 수입해간 많은 나라들도 自國에서 껌을 생산한 것을 고려하면 껌의 세계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세계의 많은 나라중 껌을 별로 소비하지 않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공뿐인데 이 나라들도 東西긴장 완화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껌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대 껌회사는 라이클리社와 아메리칸·치클社이다.

1899년 창립된 아메리칸·치클社가 한동안 세계 최대의 껌 메이커였다.

그러나 1900년대 초에 창설된 라이클리社는 껌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아래 새로운 상표의 스피어민트라는 껌을개발, 1백만 \$의 비용을 투입해 대대적인 선전을 벌임으로써 매상고를 크게 증가시켰다.

오늘날 세계 최대의 껌 메이커가된 라이클리社는 스피어민트, 바블민트, 주시, 푸르트 등 3개 주요상표외에 그레이프, 레몬, 애플, 체리등을 가미한 40여종의 껌을 생산하고 있다.

1928년대에 등장한 풍선껌은 현재 미국시장의 15—20%를 석권하고 있다.

플라스틱병 生産準備

美몬산토社·코카콜라와 계약체결

美國, 英國, 日本의 化學會社들은 콜라類와 같은炭酸性청량음료 容器로 플라스틱병을 大量生産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會社중 美國의 淸산토社는 이미 마케팅 테스트를 끝내고 美國의 코카콜라社와 協定을 체결, 금년부터 플라스틱콜라병의 大量生産을 개시한다.

英國에서는 ICI(인피어리얼 케미컬)社가 링크셔의 힐하우스에 年産 3백톤 규모의 플라스틱병 開發工場을 세우고 현재 試驗生産중에 있는데 결과는 『극히 낙관적』이라고 이 會社 대변인이 전했다.

이외에 美國의 듀폰社와 日本의 미쓰비시(三井)社가 플라스틱병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플라스틱병이 과거 한때는 밀크나 非炭酸청량음료 容器로 사용된 적은 있으나 炭酸飲料는 그 容器가 內部的 壓力도 견디어 내고 外部의 충격도 이겨낼만큼 견고한 物質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플라스틱병이 탄산성 음료容器로 사용된 적은 없다.

對日市場開拓에 全力

英國·食品展示會開催계기로

英國食品會社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東京의 英國輸出마케팅센터에서 개최된 英國食品展示會를 계기로 對日輸出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 展示會에는 25개 英國會社들이 參加했으며 이외에 다른 25개社는 通商使節團으로 日本을 방문 했다.

지난해 英國의 對日食品輸出高는 72년의 前 40만달라에서 대폭 증가한 8천 8백 80만달라에 달했는데 이같은 輸出增加는 주로 초콜렛, 비스켓, 위스키의 輸出量急增에 힘입은 것이다.

현재 日本의 슈퍼마켓, 셀프서비스 스토어의 總賣出高중 食品및 飲料가 차지하는 比率는 20%以上이고 百貨店은 食品의 경우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輸入食品은 日本에 상당한 好條件의 잠재시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日本의 초콜렛菓子類輸入額은 28억 6천 1백만엔인데 이중 英國이 29%를 輸出 2位를 마크하고 있으며 糖菓類는 日本總輸入額 9억 5천만엔중에서 21%를 占하고 있다.

日本의 비스켓輸入市場은 덴마크가 절반 이상을 장악, 지난해 日本總輸入額 10억 9천 2백만엔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英國은 23%정도를 占하고 있다.

설탕 增産에 박차

印尼·外資導入을 적극 권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관계 민간기업에 대해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설탕을 증산 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 제 2의 설탕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몇해전부터는 오히려 설탕수입국으로 전락되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국제거래가 급등, 설탕수입에 지불되는 外資나 低價格 유지를 위한 정부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왔다.

인도네시아의 설탕수요는 제 1차 5개년계획의 초년도인 69년에 1인당 6.5kg이었으나 최근엔 10kg까지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전체로선 연간 수요량이 1백 30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생산은 1백만톤안 밖으로 부족분인 30만톤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